

荀子の「賦篇」考

김 성 수 *

<目次>

- | | |
|--------------|--------------------|
| I. 서론 | III. 「賦篇」의 문학사적 의의 |
| II. 「賦篇」의 갈래 | IV. 결론 |

<국문 초록>

「賦篇」은 荀子が 남긴 유일한 辭賦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찍이 漢賦의 원형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 당위성이나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형편이다. 순자는 儒家의 祖宗이라는 명성에 가려져 문학적인 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賦篇」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性惡篇」 같이 각광 받는 철학 사상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문학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賦篇」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는 의외로 크다.

이제 이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의 장르에 대해서마저도 명쾌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賦의 원형이라고 하면서도 이 작품의 일부는 賦가 아니라 詩라고 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따로 나누어서 장르를 설정하자는 말인데 이래서야 賦의 원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통하여 「賦篇」은 한 편의 ‘완결된 辭賦 작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장르와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우리 학계에서는 辭, 賦, 辭賦에 대한

* 공주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kimss@kongju.ac.kr

개념이나 규정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늘 논의에 혼선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辭賦라는 통합개념으로 묶고, 사부의 일반적인 요건인 작품의 構成方式, 字句形式, 押韻, 修辭法 등을 통하여 작품을 일일이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사부에 대하여 흠어졌던 개념과 의견들을 모으고, 나아가 그 동안 「賦篇」에 대하여 있었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매김함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辭賦의 장르적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왔다. 대개는 屈原·宋玉 등을 중심으로 해서 楚辭에서부터 漢賦로 초창기의 사부문학사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러한 주장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기존 주장들의 설득력이 약해질수록 「賦篇」의 문학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楚辭 중심의 관행에 「賦篇」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그 정당한 사부문학사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남긴 辭賦家로서의 荀子の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싶다.

【주제어】 荀賦, 賦篇, 辭賦의 요건, 순부의 문학사적 가치, 辭賦家 荀子

I. 서론

통상 先秦시대의 인물들이 그렇듯이 荀子の 연대기도 확실하지 않다. 이 연구가 荀子の 인물연구가 아니므로 정확한 生沒 연대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대개 기원전 320년에서 230년 전후로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연대도 확실하게 다잡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楚辭 名人 屈原보다는 30여 년 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면 屈原의 「離騷」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법도 하다. 이는 荀子和 「賦篇」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정할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荀子是 알려진 대로 戰國 말기를 대표하는 儒家의 祖宗이다. 후세의

의도에 의해서 그 聲價가 비록 孟子에 미치지 못하지만 儒家의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孔子·孟子가 儒家 道統의 씨를 뿌렸다면, 荀子は 그 틀을 잡았고, 『孔子』·『孟子』가 그 언행을 기록한 ‘述’의 단계에 그쳤다면, 『荀子』는 스스로 儒家의 도리를 의도적으로 ‘作’하여 체계화 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荀子』는 荀子の 儒家철학을 집대성한 저술인데 그 32편 중에 「賦篇」이 끼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기이한 일이다. 다른 것이 說理的인 論文일 때 이것만은 운문의 시가문학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荀子が 시인으로, 문인으로 논의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賦篇」은 틀림없는 운문문학이요, 그것도 賦의 原型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말하자면 荀子は 儒家의 祖宗이면서 동시에 賦문학의 개척자가 되는 셈이니 특이한 일이다. 만약에 같은 시가문학인 「成相篇」마저 없었다면 자칫 이 작품 하나가 잘못 끼어들어간 僞作으로 의심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두 편의 시가문학이 나란히 기록됨으로써 同明相照하여 작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절묘한 일이기도 하다. 荀子를 儒家의 철학자로만이 아닌 文人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한정된 지면관계로 「成相篇」을 소개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중국 고대문헌이 대개 그렇듯이 그 진실성에 회의를 품는 일이 많다. 『荀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 32편 중에서 「天論」 「解蔽」 「正名」 「性惡」 「富國」 「禮論」 정도가 순수한 荀子の 저술이요, 나머지는 후대의 僞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 그렇다면 본제인 「賦篇」과 「成相篇」은 실제로 荀子の 작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모든 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연구의 성립을 위해서는 부득이 사실 관계 확인 과정 없이 僞作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될 모든 일은 이 「賦篇」이 「成相篇」과 함께 荀子

1) 王忠林, 『荀子讀本』, 臺灣:三民書局, 1981, p.11. 참조.

의 작품이 틀림없다는 것, 굴원의 「離騷」 후에 지어졌다는 것, 荀子가 기원전 230년 전후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을 밝힌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우선 작품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작품의 갈래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형편이다. 물론 제목 그대로 ‘賦’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에 합당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듯하다.

2) 「賦篇」은 하나의 작품인지, 여러 편의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정론이 없다. 이에 대한 정당한 규명이 필요하다.

3) 이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흔히 이 작품이 漢賦의 原型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확인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작품의 문학적 면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도 『荀子』를 번역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원문 번역 수준 정도를 넘지 못한 듯하다. 그나마 이미 이 정도의 성과는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원문 번역은 문학적 정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意譯을 원칙으로 하였다. 축자적인 번역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문에 대한 기초적인 해설, 자구해석 등도 이미 성과가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字句에 대한 脚註를 과감히 생략하여 지면을 절약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아직 미비하거나 연구자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석을 붙인다. 이 작품의 갈래를 규정할 수 있는 형식적 요소로 압운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물론 당대의 압운을 지금에 와서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의 字句 配行도 역시 글의 갈래규정이나 작품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문의 경우 압운에 따라서 배행을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에 따라서 필자 나름대로 원문을 재배열하였다. 운문의 배행은 작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형식적 요소이다.

II. 「賦篇」의 갈래

이 작품은 일찍이 賦의 원형으로 인정되어왔지만 그 眞僞에 대해서는 의외로 논의가 허술했다. 중국에서도 이따금 禮賦, 知賦, 雲賦, 箴賦 등으로 언급되었고, 심지어는 작품 전체를 5賦 2詩로 단정한 예도 있어²⁾ 얼핏 여러 편의 작품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이니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갈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규정을 위해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작품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와 의의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작품의 전체를 필자의 번역문과 함께 인용한다.

1.3)

爰有大物,

非絲非帛, 文理成章●

非日非月, 爲天下明●

生者以壽, 死者以葬●

城郭以固, 三軍以强●

粹而王, 駁而伯, 無一焉而亡●

臣愚不識, 敢請之王●

王曰,

此夫文而不采●者與?

簡然易知而致有理●者與?

君子所敬而小人所不⁴⁾●者與?

2) 林忠林, 앞의 책, p.9. 참조.

3) 번호는 필자가 매김.

4) 否의 뜻으로 通韻임.

性不得則若禽獸, 性得之則甚雅似●者與?
匹夫隆之則爲聖人, 諸侯隆之則一四海●者與?
致明而約, 甚順而體● 請歸之禮● 禮.

여기 위대한 것이 있으니
비단도 실도 아닌 것이 정연하여 아름다움을 이루고,
해도 달도 아니면서 천하의 광명되고,
생자에게는 삶이 되고, 사자에게는 喪禮되고,
성곽을 튼튼히 하고, 삼군을 군세게 하며,
이것을 오로지 하면 왕이 되고, 거칠게 해도 제후 되고,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
臣은 이를 알지 못하여 감히 왕께 묻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무늬는 있어도 색깔은 없는 것이지?
간결하여 알기 쉽고, 이치 정연한 것이지?
군자는 이를 받드나 소인은 싫어하는 것이지?
성품에 이것이 없으면 금수가 되고, 있으면 우아한 군자가 되지?
필부라도 이를 닦으면 성인 되고, 제후도 천자가 되지?
명확하고 간단한 이치, 순조롭게 익혀 禮에 돌아갈지이다.⁵⁾ 禮.

2.

皇天降⁶⁾物, 以示下民●
或厚或薄, 常不齊均●
桀紂以亂, 湯武以賢●
昏昏⁷⁾淑淑 皇皇穆穆●
周流四海, 曾不崇日●
君子以脩, 跣以穿室●
大參乎天, 精微而無形●
行義以正, 事業以成●
可以禁暴足窮 百姓待之而後泰寧●⁸⁾

5) 『論語』, 「顏淵」, “顏淵 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6) 王先謙 註: 降, 備와 같다.
7) 王先謙 註: 思慮混亂과 같다.

臣愚不識, 願問其名●
 曰, 此夫安寬平而危險隘●者邪?
 脩潔之爲親而雜汙之爲狄●者邪?
 甚深藏而外勝敵●者邪?
 法禹舜而能奔迹●者邪?
 行爲動靜待之而後適●者邪?
 血氣之精●也, 志意之榮●也.
 百姓待之而後寧●也, 天下待之而後平●也.
 明達純粹而無疵●也, 夫是之謂君子以知● 知.

하늘에서 세상에 내리시었는데
 많이도 주고 적게도 주어 고르지 않아서,
 桀과紂는 어지러웠고, 탕왕 무왕은 어질었으니,
 어지럽고 움츠러들기도 하고⁹⁾, 찬란하고 온화하고,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하루도 걸리지 않아,
 군자는 이로써 수신하고, 도척은 도둑질 하고,
 크게는 하늘에 뻗치고, 작게는 형체마저 없고,
 行義를 바르게 하고, 事業을 이루고,
 포악을 금하고 부족함을 채우니 백성은 이를 기다려 편안하게 하는 것.
 신이 어리석어 알지 못하여 그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태평한 곳에서는 편안하고, 험악한 곳에서는 위태롭지?
 고매한 자는 가까이 하고, 천박한 자는 멀리하지?
 깊이 숨어있다가도 밖으로는 적을 이기지?
 舜·禹를 배우고, 따르는 것이지?
 매사를 주의 깊게 살펴 따르는 것이지?
 혈기의 精髓이며, 志意의 表象이라.
 백성은 이를 익혀 편안하고, 천하는 태평하네.
 명달하고 순수하여 흠이란 없으니 이것이 君子の 知이라. 知.

8) 原文의 ‘寧泰’는 압운에 맞지 않아 王先謙은 ‘泰寧’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王先謙의 지적이 타당하여 고쳐 적었다. 앞 구의 ‘窮足’도 같은 원리이다.
 9) 글자대로 美로 풀이하나 王先謙의 의견이 맥락에 맞아 이를 좇았다.

3.

有物於此

居則周靜致下, 動則慕高以鉅●

圓者中規, 方者中矩●

大參天地, 德厚堯禹●

精微乎毫毛, 而大盈乎大字●

忽兮其極之遠●也,

擻兮其相逐而反●也,

叩叩兮天下之咸蹇●也.

德厚而不捐, 五采備而成文●

往來悞憊, 通于大神●

出入甚極, 莫知其門●

天下失之則滅, 得之則存●

弟子不敏, 此之願陳●

君子設辭● 請測意¹⁰⁾之●

曰, 此夫大而不塞●者與?

充盈大字而不窳, 入郟穴而不偏●者與?

行遠疾速而不可託●(詎*¹¹⁾)者與?

往來悞憊而不可爲固塞●者與?

暴至殺傷而不億忌●者與?

功被天下而不私置●者與?

託地而游宇, 友風而子雨●

冬日作寒, 夏日作暑●

廣大精神● 請歸之雲● 雲.

이것은 조용히 낮게 뭉쳐있다가도 움직이면 높이 치솟아 널리 퍼지고,

둥글 때는規에 맞고, 角질 때는 矩에 맞아,

크게는 천지에 뻗쳐있고, 덕으로는堯·禹를 기르고,

작게는 터럭에 깃들고 크게는 우주에 가득하고,

10) 王引之 註: 測度和 같다.

11) ‘詎’은 압운이 아니어서 의문의 글자이다. 王先謙은 이를 의심하여 압운인 ‘續’의 誤字이거나 ‘詎’과 뒤바뀐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詎’이 押韻字가 되는 셈이다.

홀연히 멀리 내닫다가도, 휘돌아 다투어 달려오고,
 높이 떠서 천하에 혜택 베풀고,
 큰 덕은 가리는 것이 없고, 오색을 갖추어 文彩를 이루고,
 가고 오기를 헤아리기 어려워도 섭리에 통하고,
 들고 남이 무상하여도 그 門을 알 수 없고,
 이것을 잃으면 천하는 망하고, 얻으면 사는 것.
 제자는 부족하여 가르침을 청하오니
 군자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깨우치소서.
 이르기를, 이것은 크면서도 막힘이 없지?
 우주에 가득 차면서도 빈틈이 없고, 틈이나 구멍으로 들어가도 답답하지 않지?
 멀리 내달려도 쫓아 소식을 전할 수 없지?
 가고 음이 무상하여 붙잡을 수 없지?
 갑자기 와서 殺傷을 하기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지?
 功은 천하에 미쳐도 가로채는 법이 없지?
 천지에 거닐면서 바람을 벗하고 비를 내리면서
 겨울에는 춥게 하고, 여름에는 덥게 하며,
 우주에 가득 차 精密하고 神通하니 그것을 일컬어 구름이라. 雲.

4.

有物於此,
 擗擗兮其狀, 屢化如神●
 功被天下, 爲萬世文●
 禮樂以成, 貴賤以分●
 養老長幼, 待之而後存●
 名號不美, 與暴爲隣●
 功立而身廢, 事成而家敗●
 棄其耆老, 收其後世●
 人屬所利, 飛鳥所害●
 臣愚而不識, 請占之五泰●
 五泰占之曰,
 此夫身女好而頭馬首●者與?
 屢化而不壽●與?

善壯而拙老●者與?
 有父母而無牝牡●者與?
 冬伏而夏游, 食桑而吐絲●
 前亂而後治● 夏生而惡暑● 喜濕而惡雨●
 蛹以爲母, 蛾以爲父●
 三俯三起● 事乃大已● 夫是之謂蠶理● 蠶.

이것은 벌거벗은 모습이나 변화가 신묘하고,
 그 공은 천하에 미쳐 영원히 裝飾하고,
 禮儀 音樂을 이루고, 귀함과 천함을 구분하고,
 노인을 봉양하고 유아를 기르는 것도 이로써 할 수 있으나
 이름은 좋지 못하여 暴惡의 뜻과 비슷하고,¹²⁾
 공을 이루되 자신은 죽고, 일을 이루되 짐은 없어지고
 늙은이는 버려지고, 후세만 거두는데
 사람에게 이로우며 주지만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것.
 신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오태께 점지하심을 청합니다.
 五泰¹³⁾가 점쳐 말하기를,
 이것은 몸은 아름답되 머리는 말과 같이 생겼지?
 허물은 여러 번 벗되 오래 살지는 못하지?
 성장은 빠르지만 늙기도 빠르지?
 부모는 있으되 암수가 따로 없지?
 겨울에는 숨어살고 여름에는 활동하고, 뽕잎을 먹고 실을 토해 내고,
 처음에는 어지러우나 나중에는 가지런하고, 여름에 태어나나 더위를 싫어하고,
 습기를 좋아하나 비는 싫어하고,
 번데기는 어미요, 나방은 아버지라,
 세 번을 잠자고 깨어나서 대업을 이루니 이것을 일컬어 누에의 이치라. 蠶.

5.
 有物於此,
 生於山阜, 處於室堂●
 無知無巧, 善治衣裳●

12) 蠶의 中國음이 慘·殘·憊 등과 같은 同音異義를 활용한 것이다.
 13) 五帝. 神巫.

不盜不竊, 穿窬而行●
 日夜合離, 以成文章●
 以能合從, 又善連衡●
 下覆百姓, 上飾帝王●
 功業甚博, 不見賢良●
 時用則存, 不用則亡●
 臣愚不識, 敢請之王●
 王曰, 此夫始生鉅其成功小●者邪?
 長其尾而銳其票●者邪?
 頭銛達而尾趨繚●者邪?
 一往一來, 結尾以爲事●
 無羽無翼, 反覆甚極●
 尾生而事起, 尾遭移事已●
 簪以爲父, 管以爲母●
 旣以縫表, 又以連裏● 夫是之謂箴理● 箴.

이것은 산에서 나와서 규방에 거처하는데
 앞도 재주도 없지만 옷 만들기는 잘하고,
 도둑질도, 훔치지도 않지만 구멍 뚫고 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흩어진 것 모아 아름다운 장식 만들고,
 縱으로 橫으로 다니면서 連衡 合從 잘도 하고¹⁴⁾,
 아래로는 백성 신발 짓고, 위로는 제왕의 冠飾하고,
 공훈은 커도 뽑내는 법이 없고,
 때가 오면 살아남고, 때가 가면 없어지는 것.
 신이 어리석어 이를 알지 못하니 왕께 감히 청합니다.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처음에는 컸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것이지?
 꼬리는 길고, 그 끝은 날카로운 것이지?
 머리는 뽕족하고, 꼬리는 기다란 것이지?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뒷막음질을 하고,
 깃도 날개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갈마들면서,
 꼬리가 생기면서 일이 시작되고, 꼬리가 감기면서 일이 끝나지.

14) 비단 짜는 것을 蘇秦의 合從과 張儀의 連衡의 정략적 외교술로 비유했다.

비너를 아버지로, 바늘통을 어미로 하고,
 곁 바느질이 끝나면 안감을 마무리한다.
 이것을 일컬어 바늘의 이치라 하지. 箴

6.

天下不治, 請陳俛詩*

天地易位, 四時易鄉¹⁵⁾列星殞墜, 旦暮晦盲[●]幽暗登昭, 日月下藏[●]公正無私, 見謂從橫[●]志愛公利, 重樓疏堂[●]無私罪人, 愍革貳¹⁶⁾兵[●]道德純備, 讒口將將[●]仁人絀約, 赦暴擅彊[●]天下幽險, 恐失世英[●]螭龍爲蝦蟇, 鷓鴣爲鳳皇[●]比干見刳, 孔子拘匡[●]昭昭乎其知之明[●]也,拂乎其遇時之不祥[●]也¹⁷⁾郁郁乎其欲禮義之大行[●]也¹⁸⁾闇乎天下之晦盲[●]也.皓天不復憂無疆[●]也.千歲必反古之常[●]也.弟子勉學天不忘[●]也.聖人共手時幾將[●]矣.與愚以疑[●] 願聞反辭[●]¹⁹⁾

15) 鄉은 方向의 뜻이다.

16) 王念孫은 ‘貳’를 ‘戒’의 잘못으로 보았다. 戒兵은 愍革과 동의로 軍備의 뜻으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17) 原文은 “郁郁乎其欲禮義之大行[●]也”로 되어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아 王先謙의 견해를 좇아 바로 잡았다.18) 앞과 같은 사정으로 原文인 “拂乎其欲禮義之大行[●]也”를 바로 잡았다.

19) 王先謙은 ‘反辭’를 ‘楚辭亂曰’과 같다고 하였다.

천하가 어지러워 탄식의 시나 읊조리니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사계도 틀어지고,
 별자리도 흩어지고, 밤낮 없이 감감하고,
 깊고 어두운 것이 빛을 발하고, 해와 달은 숨어버렸네.
 공정무사한 사람이 謀利輩로 몰리고,
 공리에 뜻을 둔 이를 개인의 영달을 구한다 하고,
 공정한 行刑을 私兵 私刑이라 하고,
 도덕을 갖추었거늘 모함하는 소리 넘쳐나고.
 어진 이는 내쳐지고, 무뢰배는 득세하고,
 세상은 어둡고 험난하니 救世의 인재가 위태롭다.
 이무기 용을 도마뱀이라 하고, 부엉이 올빼미를 봉황이라 하고,
 比干은 도륙을 당하고, 孔子는 匡에서 곤욕을 당했다.
 지혜의 밝음이 빛났건만
 세상을 잘못 만나 어그러지고,
 예의를 크게 떨칠 광명이었건만
 천하는 어둡고 눈 멀었구나.
 밝은 세상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근심만 쌓이는데
 천세 후에는 다시 좋은 세상이 오려나.
 제자는 학문을 닦으면서 기다리면 하늘이 무심치 않으려니
 성인이 내려올 날 기어오 오려나.
 어리석음에 미답지 않으니 원하건대 다시 다짐 들고자 하나이다.

7.

其小歌曰²⁰⁾

念彼遠方何其塞●矣.

仁人絀約暴人衍*矣.²¹⁾

忠臣危殆讒人服●矣.

琬玉瑤珠, 不知佩●也.

雜布與錦, 不知異*也.

閭媿子奢[都], 莫之媒●也.

20) ‘小歌’를 王先謙은 總論前意로 보는데 이는 辭賦의 결말표지인 亂詞와 일치한다.

21) 盧文弔召은 ‘愆’이 압운이 되어있지 않아서 般의 誤字로, 혹은 色服의 誤字로 보았다.(“愆不與塞服爲韻 服字本有作般者 則塞或愆字之誤”)

謨母力父, 是之喜*也.
 以盲爲明, 以聾爲聰●
 以危爲安, 以吉爲兇●
 嗚呼上天, 曷維其同●²²⁾

小歌에 이르기를
 저 먼 곳을 생각하니 어찌 그리 막혀있나?
 어진 이는 내쳐지고, 포악한 자들이 행세하고,
 충신은 위태하고, 간사한 자들이 판을 치네.
 보석진주 버려지고
 거친 옷감과 비단이 다른 줄 모르는구나.
 여취 子都²³⁾같은 미인 감춰지고
 모모 역부 같은 추녀가 미인이라네.
 맹인을 눈 밝다 하고, 귀머거리들 귀 밝다 하고,
 위기를 태평이라 하고, 길조를 흉조라 하네.
 오호, 하늘이여! 어찌 그것이 같을 수 있으리오?

우선 이 작품의 갈래를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필자는 이를 한 편의 辭賦라고 규정한다.²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부의 요건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1. 형식구조

1) 3단구조

3단구조는 처음, 중간, 끝이라는 글의 일반적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22) 王先謙은 “遺春申君之賦也”라 하여 이 작품을 荀子가 당대 楚의 권세가 춘신군에게 바친 것이라고 보았다.
 23) 王先謙은 子奢를 鄭의 미인 子都의 誤記로 보았다.
 24) 아직도 辭, 賦, 辭賦라는 명칭들이 구분 없이 섞여 쓰이는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세히 정리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金星洙, 『辭賦文學研究』, 公州大學校 出版部, 2008. 참조.)

사부도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글 전체를 하나의 구조체로 본다면 이 작품은 3단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혹은 작품에 병렬된 다섯 가지의 사물을 각기 다른 별개의 賦로 간주하거나, 6·7을 별도의 詩歌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몇 편의 辭賦와 詩歌가 질서 없이 합쳐진 잡동사니에 그친다는 말이 된다. 전체를 독립된 7편의 賦로 본다면 모르겠으나 일부는 賦요, 일부는 詩라는 해석은 작품 전체를 「賦篇」이라는 단일한 제목으로 싣고 있는 체제로 보아서도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사부의 구조 특성과 내용적 결속성을 작품의 구조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荀子』註의 권위자인 王先謙을 비롯한 학자들이 이 작품 전체를 荀子が 당대의 권세가인 春申君에게 보낸 한 편의 구조체로 보고 인정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²⁵⁾ 그들은 실제로 6 말미의 ‘反辭’에 대한 대응으로 7의 ‘小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6과 7은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²⁶⁾ 다시 말하면 6은 臣의 뉘이요, 7은 상대방인 왕의 응답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이들의 자구형식이나 형식구조도 유사하여 따로 떼어서 말하기 어렵다. 이는 전반부 1~5와의 의미 구조와도 연결성이 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 제시된 儒家의 도리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失意的 개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형식구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 작품을 한 편의 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시가문학인 「成相篇」이다. 이는 중국의 민요의 형식을 빌어 儒家 치세의 도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가 教化를 목적으로 한 시가문학작품이다. 작품의

25) 王先謙, 『荀子集解』, 臺灣: 藝文印書館, 1977, p.769, “此章即遣春申君之賦也.” 「成相篇」에는 실제로 작품 중에 春申君이 언급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6) 王先謙은 ‘其小歌曰’의 주석에서 “此下一章即其反辭 故謂之小歌 總論前意也”라고 하였다. 이는 ‘小歌’를 6과 7의 문맥을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로 보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내용, 형식이나 문학적 수단이 이것과 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成相篇」은 한 편의 작품으로 보면서도 이것만을 별개의 作品群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부의 3단구조란 序, 本, 結의 구조를 말한다. 작품의 실마리 부분, 본사, 결사가 대체적인 사부의 3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사부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두에서 작품의 창작배경, 동기, 목적, 대강 등을 적은 부분이 序이고, 작품의 뒤에서 전체의 내용을 총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본문과는 다른 운문시가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결말이 結詞, 혹은 亂詞이다. 序와 결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심 부분이 本辭이다. 이 중에서 사부의 형식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결말인 이른바 ‘亂詞’인데 이 작품도 7. ‘小歌曰’ 이하가 사부의 ‘亂曰’과 같은 것으로 전형적 사부의 結末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 작품의 序는 확실히 다잡기 어렵다. 우선 작품에 앞서 작품의 머리 기능을 하는 序가 따로 없다. 사부에 序가 없는 경우,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序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것도 확실치 않고, 작품의 전반부는 禮·知·雲·蠶·箴이 대등적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의 차별화가 어렵다. 禮, 知가 추상적 덕목을 예찬한 것이고, 雲·蠶·箴이 구체적 사물의 예찬을 통하여 군자의 덕성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 내용적 구별이 곤란하다. 오히려 儒家의 도덕적 가치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더 뚜렷하다. 그러나 6부터는 어지러운 세상을 개탄하는 깊은 서정의 세계로 작자의 주제의식이 전반부와는 아주 달라 序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6 이하는 작품의 본문으로 잡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 1~5까지는 작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儒家의 가치관이고, 6은 그 이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을 개탄한 것으로 내용과 의미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렇다면 1~5가 사부의 序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것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사부 작품 중에서 序가 본문보다 길어 이렇게 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사례가 드

물어 곤란하게 한다.

그러나 사부 작품 중에는 竝序도, 머리 부분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이 작품도 그러한 예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序가 생략된 가운데에서 1~5를 儒家의 치세 도리를 밝힌 本文으로, 6·7을 이상과 괴리된 현실적인 失志를 탄식한 結末로 파악할 수 있어 역시 사부의 3단구성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2) 語句

사부는 기본적으로 운문이고, 이 작품도 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정제된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辭賦는 일반 시가와 달리 다양한 字句를 구사하여 변화의 묘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구나 초기의 楚辭가 비교적 단순한 자구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漢賦 계열에 속하는 사부에서는 훨씬 다양한 자구를 보이고 있고, 宋의 文賦에 이르면 散文句까지 혼용되어 운문 산문의 조화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字句 양상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4字句이다. 이는 중국 운문에서 가장 오래 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자구형식이다. 『詩經』이나 漢樂府의 시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형적인 운문시가문학의 자구 양식이다. 이것이 楚辭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다가 漢賦에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다. 4자구가 漢賦를 특징짓는 요소라면 이를 자주 구사한 이 작품이 곧 한부의 바탕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5자구, 6자구이다. 5자구, 6자구가 4자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개는 4자구 사이에 虛辭를 개입시켜 의미와 형식의 변화를 노리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은 4자구에 형식적인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해야 옳다.

이에 비하여 7자구 이상은 보통 여러 문장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의 폭이나 진술구조가 앞과 같지 않다. 단편적이고 압축적인 의미일 경우에는 4자, 혹은 5, 6자로 충분하겠지만 복잡적이고 다양한 내

용을 담으려면 보다 긴 字句型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7자로도 부족하여 많게는 10자를 넘기도 한다. 사부는 운문과 산문, 서정과 서사가 혼재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갈래이므로 이렇게 다양한 字句型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곧 사부문학의 자구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字句가 두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 전체가 한 편의 사부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3) 對偶

대우는 對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사기교이다. 우리의 대구에 비해서 글자 數, 聲調, 押韻, 統辭構造 등에서 매우 精緻性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훨씬 형식미가 엄정하다. 語句에서 언급되었지만 중국의 문화나 사고의 구조는 전통적으로 짝수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선호한다. 그래서 짝수인 2자구 4자구를 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짝을 이루게 함으로써 의미와 형식의 균형적 안정감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이 한문에서 대우가 애용되고 성행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일찍이 대우는 『詩經』을 비롯한 모든 문학에서 널리 애용되던 기교였고, 사부문학에서 완성된 전통적인 기법으로 漢文學을 특징짓는 대표적 수사법이였다.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 작품 전편에서 두루 대우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동일 字句型이 겹쳐 있는 것은 대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도 좋다. 이러한 對偶의 구조는 사부문학의 字句 配行이나 의미 단락을 파악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 對偶의 구조에 따라 우리말로 옮겨야 原文의 문학적 운치를 살릴 수 있다.

4) 押韻

사부가 운문과 산문을 겸비한 문학이라면 당연히 압운이 있어야 한

다. 압운은 사부문학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부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압운의 파악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운문시가성이 뚜렷한 楚辭系의 사부는 매우 철저한 압운을 하고 있고, 산문화가 진행된 漢賦에서는 압운이 느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작품은 *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압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문성이 강한 사부이다. 혹 압운이 되지 않은 곳도 誤記나 誤字일 경우도 있고, 지금은 通韻이 안되지만 當代에는 압운으로 간주되던 곳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후대의 주석가들은 압운이 안 된 곳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보면 이 작품은 압운에 매우 철저한 사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부가 철두철미 압운의 규칙을 엄수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漢賦나 散文賦에 이르면 압운은 현저히 이완된다. 이 작품이 아직 철저한 압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초기 사부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초창기의 사부문학이며, 훗날 漢賦의 先聲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부의 압운은 보통 隔句 압운으로 짝수 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훗날 漢詩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는 한시의 압운 형식에 사부가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辭賦는 형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압운도 보다 자유롭다. 압운할 자리를 건너뛰기도 하지만 걸러야 할 자리에 압운을 더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매 장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隔句 압운에서 벗어나 每句 압운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漢詩와는 다른 사부만의 압운방식이다.

5) 問答體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있는 문답체는 사부문학을 특징짓는 수사방법이다. 사부가 서정과 함께 서사성을 가지고 있고, 서사장르에서는 문답의 형식을 갖는 대화가 주요한 사건전개의 수단이므로 이는 당연한 일

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정적인 장면이 우세한 초사계열에서도 여전히 문답체가 사용되는 일은 예사롭지 않다. 굴원의 「離騷」가 짙은 서정성을 띠면서도 문답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이 작품은 어떤 사부 작품보다 더 철저하게 문답체를 구사하고 있다. 전반부는 서사적 성격이 짙은 내용이므로 당연하다 하겠으나 후반부는 짙은 서정의 정서임에도 문답의 형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부문학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도 좋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용된 문답체는 이것이 사부문학임을 입증하는 형식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화의 대화자가 일정치 않은 것이 의문이다. 禮, 知, 箴에서는 臣과 王의 대화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인 雲과 후반부에서는 제자와 군자가, 蠶에서는 臣과 五泰가 대화자로 되어 있어 한 작품으로서는 話者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을 여러 편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듯하다. 대화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 작품들이 시차를 두고 달리 지어졌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전반부와 후반부의 확연한 차이를 보면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어쩌면 각기 달리 지어진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賦篇」으로 묶었을지도 모른다. 한 편의 작품을 시차를 두고 써서 나중에 정리하여 완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사부같이 장편의 경우는 그러한 개연성이 훨씬 짙다. 그러나 대화자에 의하여 별개의 작품으로 보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이들을 별개의 작품으로 본다면 도대체 몇 편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더구나 그 당위성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설령 애초에 이들이 각기 지어진 것이라 해도 같은 편차에 묶어 「賦篇」이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이들을 별개의 작품으로 남기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으로 刪定하려는 것이 작자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소 구조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3단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완성된 사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이 작품 완성도의 한계요, 초창기 사부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두 화자인 臣, 혹은 弟子와 王, 혹은 君子, 五泰 등의 화자를 달리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王先謙의 견해로는 臣, 제자는 작자인 荀子요, 청자는 春申君이라고 하지만 이에 얽매이기 보다는 청자이건 화자이건 모두 작자 자신이요, 작품의 일반적 화자라고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내용

사부의 내용을 일괄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다른 갈래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그러나 사부는 귀족문학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부의 작가들은 대개 고관대작이나 사대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작품의 내용은 귀족적인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詩經』이나 樂府, 詞나 傳奇 등이 갖고 있는 서민성과는 좀 다른 사정이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작가가 그랬듯이 전형적인 지배계층의 문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1~5에서 나타난 주제의식은 한결같이 군자의 도리와 치세의 도리로 되어있다. 禮와 知의 도리를 직설적으로 밝힌 것도 그렇고, 雲과 蠶과 箴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군자와 치세의 도리를 나타낸 것도 귀족문학이나 儒家의 문학관, 수단과 부합된다. 그리고 역시 지배계층답게 내용이나 그 제시방식도 다분히 교훈적, 권위적, 施惠의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방식도 매우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이고, 설득적이어서 역시 엘리트로서의 품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6~7은 아주 대조적이다. 지배계층으로서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에 대처하는 정서적 태도에 있어서는 失意的 탄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정서의 차이가 극단적이어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이다. 전반부와는 마치 작품의 한 부분이 떨어져나간 것 같이 작품

의 결속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적, 정서적 차이는 이 작품을 여러 편의 작품으로 이해하려는 빌미가 된 듯하다. 이러한 판이한 내용이나 정서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구조적 결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작품이 알려진 대로 사부문학의 초창기에 속하는 작품이고, 漢賦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구조적 미숙은 어느 정도 양해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작품의 지나친 원숙성으로 인하여 「離騷」가 屈原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다.

Ⅲ. 「賦篇」의 문학사적 의의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辭賦문학의 개척

흔히 사부문학의 기원을 楚辭로 말한다. 초사는 나름대로의 특징적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漢賦로 일컬어지는 賦와 명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초사와 賦를 별개의 갈래로 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초사가 앞서 나와 賦로 발전해나갔다는 주장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사와 賦를 몽땅그려 辭賦라고 범칭하는 것이 상례이다. 구태여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서정성 시가성이 뚜렷한 초사와 서사 산문성이 두드러진 漢賦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을 관행적으로 漢賦의 원형으로 잡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초사와 賦를 통틀어 辭賦라고 일컬을 수 있다면 이 작품을 사부문학의 개척적 위치에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초

사라 하여 시대적으로 이 작품에 앞선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사문학의 비조라고 하는 屈原의 작품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집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후반부의 서정적 태도나 결말의 마무리 방식에서 그렇다. 그러나 굴원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天問」

「卜居」 「漁父」 등을 보면 「離騷」 「遠遊」 같은 서정적 사부와는 아주 다른 내용과 형식을 보이고 있어 당황스럽게 한다. 이들은 이 작품보다 더 산문화되어 있어 이보다 더 漢賦 쪽에 근접되어 있다. 만약에 이들이 모두 굴원의 작품이 사실이라면 荀子の 사부문학사적 위치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의 사부문학적 면모는 굴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굴원의 후예라고 하는 宋玉의 「風賦」 「高唐賦」 「登徒子好色賦」 등이 보여주는 사부문학적 원숙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송옥의 작품들은 이미 완전한 한부의 전형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송옥의 작품들은 대부분 후인의 僞作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굴원의 작품들도 그 진위를 의심받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辭賦家로서 순자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반대로 기왕의 굴원, 송옥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빌미가 될 것이다.

2. 辭賦의 參與文學의 기능 실현

모든 문학이 일정한 사회적 참여기능을 갖듯이 사부도 그렇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참여의식은 보다 적극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 작품의 풍자, 교훈, 수범적 성격은 곧 荀子の 사회참여 의식의 발로이다. 물론 문학의 사회참여 의식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詩經』이 이른바 比, 興의 풍자적, 비유적인 간접적 수단에 의지하였고, 그러한 해석도 훗날의 인위적, 의도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실제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屈原의 楚辭가 비록 사회현상의 부조리에 대한 비분강개를 토로한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 독백적 탄식에 그쳐 그 사회적 기능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이에 비하여 이 작품은 강력하고, 분명

한 어조로 教條的 내용과 치세의 도리를 냉철하게 설파하고 있어 그 적극적인 사회적 기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雲, 蠶, 箴이 사물에 비유하여 간접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낸 데 반하여 知, 禮는 직접적으로 教化의도를 천명하고 있어 그 사회적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의식은 훗날 漢賦의 명분에 그치는 애매모호한 사회참여의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荀子の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 이념을 형상화했다는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荀子の 문학성 입증

荀子를 문학적으로 조명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느 儒家보다 냉철하고, 논리적이며, 실천적인 도리를 강조했던 그에게 문학적인 성과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보다는 비문학적이요, 반문학적인 인상마저 주는 것이 荀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賦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成相篇」까지 같이 있어 荀子の 문학적 비중을 과소평가 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문학성은 『論語』 『孟子』를 비롯한 諸子百家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荀子가 상대적으로 특별한 문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荀子가 순수한 문학적 취향으로 이 두 편의 작품을 지었건, 風化·教化의 수단으로 문학을 이용하였건 상관없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荀子를 논의할 때에는 그의 문학적 면모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荀子』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荀子の 작품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생각한다면, 이 두 작품만을 내세워 논의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漢書』에 “荀賦十篇”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유수의 사부작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그의 문학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이다. 어쨌든 앞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므로 일단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이 연구의 결과로써 이것이 荀子の 작

품이라는 사실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荀子보다 앞선 시대로 생각되는 宋玉의 작품들이 오히려 이보다 훨씬 완성된 漢賦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들이 僞作이라고 단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굴원과 송옥이 辭賦文學史에서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면 荀子와 그의 辭賦는 가장 확실한 사부의 개척자요, 신뢰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荀子는 漢賦에 한정되지 않는, 辭賦문학 전체에 걸친 개척자로 일컬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荀子가 문학적으로, 辭賦家로 논의된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것은 그가 儒家를 대표하는 학자로서의 명성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荀賦를 漢賦의 先聲으로 인정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사부 작품이 고작 한 편밖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평가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荀子の 유일한 辭賦인 이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비록 한 편에 그치는 辭賦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갖는 사부문학사적 연구 가치는 적지 않다.

먼저 이 작품은 완결된 한 편의 사부 작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구성, 자구형식, 압운, 문답체,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완전한 사부로서는 다소의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창기의 작품으로는 손색이 없는 한 편의 사부임을 입증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에서 사용한 작품 분석방법은 이 작품은 물론, 다른 사부작품의 연구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이 辭賦의 시초라는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작품이 漢賦의 原形이라면 흔히 말하는 대

로 楚辭와 漢賦를 잇는 교량적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荀子が 갖는 사부문학사적인 위치를 매김 할 수 있었다. 荀子에 앞서 굴원, 송옥 등이 사부문학의 개척자로 언급되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실증적으로 荀子는 그에 못지않거나 그들을 능가하는 사부작가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비록 갈래는 다르나 「成相篇」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송옥을 비롯하여 거론되는 몇몇 辭賦家들의 실재 여부를 의심하는 견해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荀賦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參考 文獻>

『論語』

- 金學柱, 『荀子』, 乙酉文化社, 2001.
윤무학, 『荀子』,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2005.
李止漢, 『荀子』, 自由文庫, 2003.
金星洙, 『辭賦文學研究』, 公州大學校 出版部, 2008.
- 傅錫壬, 『楚辭讀本』, 臺灣: 三民書局, 1975.
王先謙, 『荀子集解』, 臺灣: 藝文印書館, 1977.
王忠林, 『荀子讀本』, 臺灣: 三民書局, 1981.
劉大杰, 『中國文學史』, 臺灣: 中華書局, 1981.

Abstract

A Study of Sun-Ja's Bu-Pyeon / Kim Sung Su*

Bu-Pyeon is the only literary work of Sa-Bu which Sun-Ja left. Even though this literary work had been evaluated as the prototype of Han-Bu, the verification of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or profound research on Sun-Ja's literary works hasn't got much attention until now. Actually Sun-Ja's talent as a poet seems to be overshadowed by his fame as one of the founders of Confucianism. Thus, researchers haven't pay much attention to Bu-Pyeon. Actually Bu-Pyeon doesn't contain profound philosophical thought like his theory tha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evil, and also his literary talent didn't draw much attention from others. However, Bu-Pyeon has surprisingly huge significance.

This study aims to re-evaluate the value of Bu-Pyeon by verifying the fact that it is a complete masterpiece of Sa-Bu literature. In order to verify the fact, the general stylistic components of Sa-Bu such as literary formation, the use of rhyme, the usage of letters and phrases, rhetorics etc. were thoroughly examined. I try to summarize various opinions about Bu-Pyeon With this and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work while examining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Bu-Pyeon'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clearly shown in Gwan-Haeng of Cho-Sa in which some writer including Gul-Won and Song-Ok etc. discussed the origin of Sa-Bu. Thus, this study re-evaluated the influence of Sun-Ja as a Sa-Bu writer.

【Key words】 Bu-Pyeon'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Bu-Pyeon, Sa-Bu, Sun-Ja

투고일 : 4월 26일, 심사일 : 6월 4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kimss@kongju.ac.kr